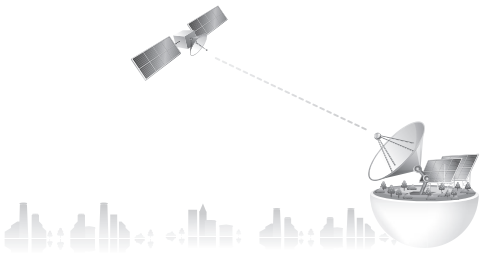
양계안테나



김동진 편집국장

종계일반검정의 필요성 힘의 논리로 종계산업을 휘어잡을 수 없다

육계인들에 이어 종계인들이 계열화사업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최근 육계계열사들과 이들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육계협회(이하 육계협회)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계일반검정을 받지 않고 계통보증서만으로도 종계임을 인정해 달라는 탄원을 준비하고 있어 일부 계열사들의 입김에 자칫 정부는 물론 생산자(종계)들이 피해를 입을 소지가 커지고 있다.

생산자단체도 아닌 육계협회가 지난해 생산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개명한 이후 생산자단체를 자처하며 본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이들은 종계일반검정이 필요 없으며, 원종계농장에서 발급하는 계통보증서만으로 대처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해부터 종계일반검정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하림 등 일부 회사가 육계협회를 앞세워 기존의 농림부 고시를 따를 수 없다고 나온 것이다.

육계협회 및 계열사에서 주장하는 계통보증서는 원종계사에서 종계를 분양할 때 발급해주는 단지 품종을 확인하는 사문서이기 때문에 본회에서 발행하는 공문서(종계일반검정확인서)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지난 2014년 전북의 한 백세미생산농가가 살처분 보상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종계로 신고 · 접수하였을 때 본회에서 종계일반검정 및 종계 DB자료를 분석하여 종계가 아님을 밝혀 부당하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뻔 했던 사례를 적발하기도 하였다.

계열사들의 주장대로 병아리계통보증서 만으로 종계를 확인해 달라는 주장은 계약농장에서 AI 발생시 계열사(원종계농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만 있으면 무조건 살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문서위조 등 부당한 사례도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 정부의 보조금 유출이 계열사에 의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종계일반검정확인서는 종계의 발생일자, 사육 유효기간, 소유자, 입식수수 등 당해 종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중요한 서류이며, 정부의 통계로 활용하면서 수급조절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AI 등 질병발생으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할 시 종계의 진위여부를 가장

공신력 있게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육계협회는 명칭변경을 할 당시에도 계열농가의 동의 없이 농가들을 회원가입을 강제로 종용하여 쉽게 명칭변경을 달성한 바 있으며, 이번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지급요령에 관해서도 정부에 집요하게 요청하고 개정안을 공표케 하여 자체 회원사 및 유통회사, 종계농가를 대상으로 대리 서명을 받으면서 목적달성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계열사들을 대변하는 육계협회의 양계산업 흔들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이번 기회에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계열사들을 위해 만들어진 육계협회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진정 양계(육계)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올라도 너무 오른 치킨가격 프랜차이즈업체에 가격인하 협조요청

여름철 복시즌이 지나고 있음에도 육계 산지가격은 여전히 생산비선 이하를 기록하면서 육계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어느 순간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치킨가격이 마리당 2만원으로 껑충 뛰어오르면서 소비자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어 자칫 소비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본회는 지난 7월초 치킨외식산업 업계에 불황에 빠진 육계산업 및 닭고기 산업 살리기에 동참해 달라고 '치킨가격 인하'를 호소하고 나섰다. 최근 10년간 치킨가격, 산지육계가격, 물가상승율을 비교해 본 결과 2014년도에 치킨가격은 평균 11,000원에서 16,000원으로 45% 상승하면서 물가상승률(31%)보다 크게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육계 산지가격은 kg당 연평균 1,242원에서 1,561원으로 물가상승률 보다 적은 25%를 기록하였다.

한국소비생활연구소에서 지난 5월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후라이드치킨의 제공량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에서 60%의 소비자들이 가격에 비해 치킨량이 적다는 불만을 내비치면서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게 형성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모 마트에서는 6,500원짜리 치킨을 내 놓으면서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소비자들은 높아진 가격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싼 골목상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치킨업계에서는 높아진 가격에 대해 인건비나 임대료, 연구비 등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치킨업계간에 빚어지는 치열한 경쟁(스타마케팅 등)에서 찾고 있으며, 이것이 회사가 아닌 영세한 가맹점에 전가되어 비용상승을 부추김으로써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꼴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가격인하를 단행할 경우 영세한 가맹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킨외식업계에서 현실적으로 가격을 낮춰준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는 물론 소비자들을 만족시켜 닭고기 소비를 더욱 신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계